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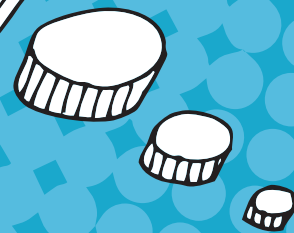


장려상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

하동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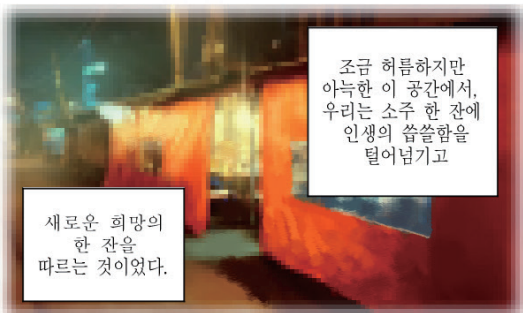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낯익지만 사람냄새
나는 원탁

먼저 자리잡고 있는
13년차 친구 H



새로운 희망의
한 잔을
따르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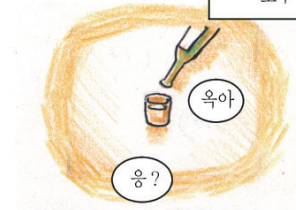
조금 허름하지만
아늑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소주 한 잔에
인생의 쓸쓸함을
털어넘기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늘 시끄럽던 녀석이
오늘은 왜 잠잠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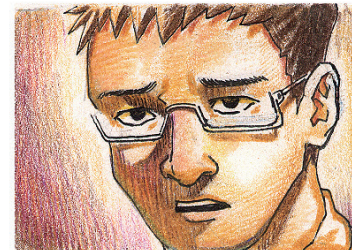
말문을 연 건 네 번째
소주 병 때



너 전에 도시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관련해서
전기 공급이 되는지 검토해달란 요청
문서나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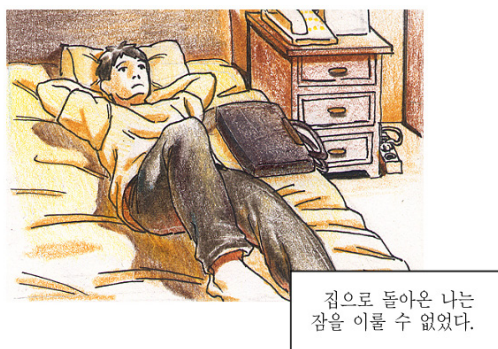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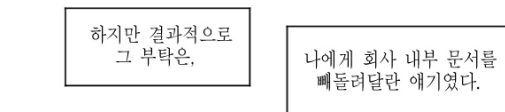
그렇지, 일단 우리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줘야
그쪽에서도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자료들 따로 정리해서 내가
좀 받아보면 안 되겠냐?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

하동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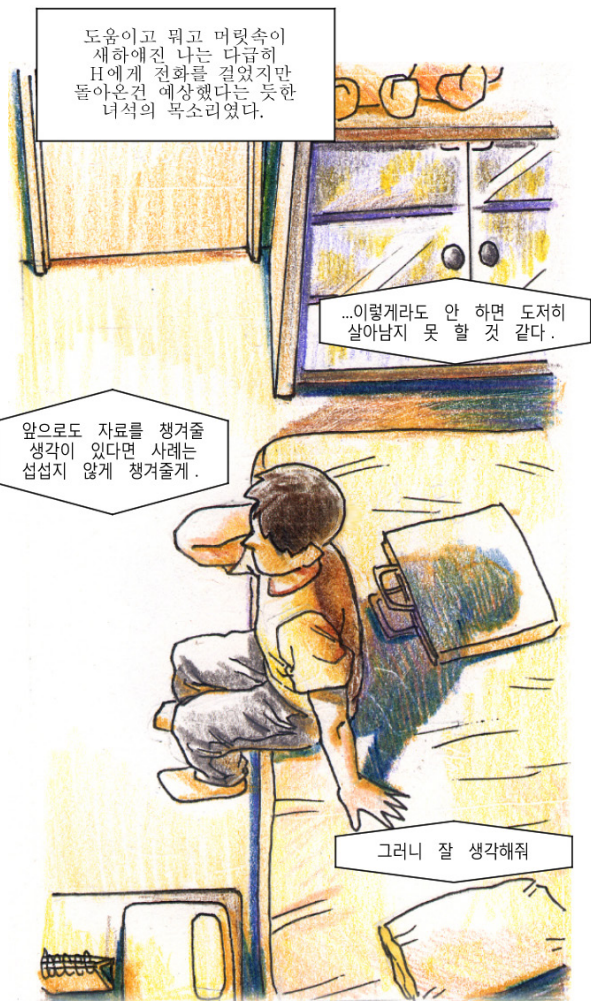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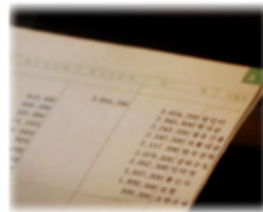
그런데 거기서 나온건,



5만원권 10장이 든 봉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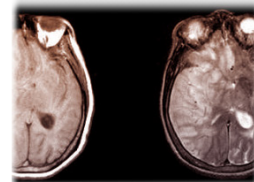


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시작부터 마이너스였던 통장

아버지의 뇌경색 치료로 인해 계속 빠져나가는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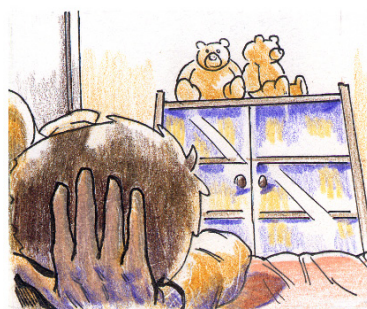
나라고 돈이 궁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다.

며칠을 봉투만 만지작거리며 보냈을까, H는 연락이 없었다.



하고 싶지만, 하면 안되는 일. 도와주고 싶지만, 분명 문제가 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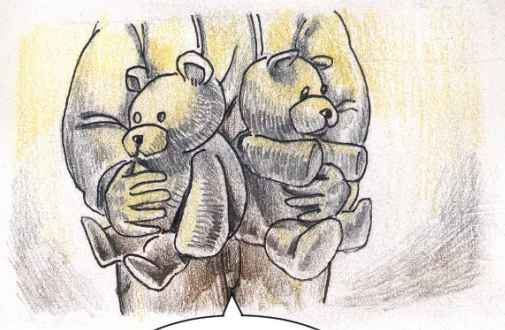
그렇게 고민하다 문득,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장식장에 시선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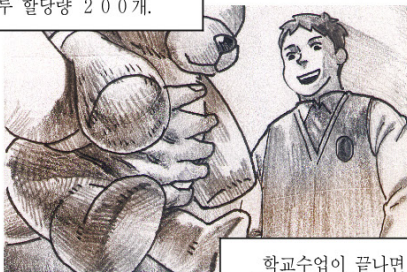


매는 고교 1학년



지금까지 일하느라 수고 많았다. 이걸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

인형 눈깔 한쌍 붙이는데 40원.
하루 할당량 200개.



학교수업이 끝나면 몰래
부업장으로 달려오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촌지'라 불리는
불법 찬조금이
당연시 되던 시절,

사교육으로 무장한
'있는집 자식들'은
그렇게 매학기
학교에 뒀 돈까지
떨러가며
훨훨 날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나를
상위의 성적을 유지하던 내가
우등생 취급을 못 받는 건 그
이유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당시 나와 같은 반에
있던 '있는집 자식' 한 명만은
이기고 싶어 나는 직접 촌지를
벌기로 한 것이다.



쫓아내려고 하는 걸
고집을 부려 억지로
일감을 얻어내고,

돈을 떼일까 불안해
그날 대가는 바로
현금으로 받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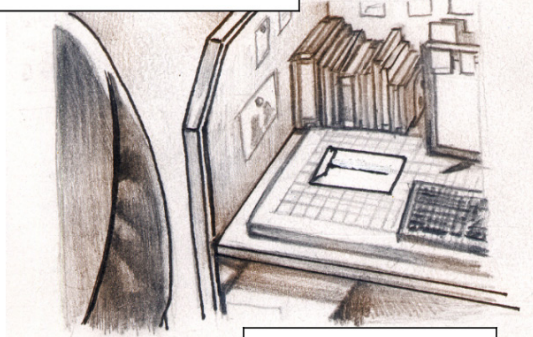
일이 끝난 뒤에는
본드 냄새가 심해 한동안
거리를 서성이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한달,



내 손엔 20만원이 쥐어져 있었다.

마침 학급 공지에 관한 회신문을
가져오는 날이 있어, 거기 돈 봉투를
끼워 넣고 교무실에 조용히 가져다 놓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주일, 이주일도 지나도
바뀌는게 없는 것 이었다.

그렇게 점차 일이
기억에서 잊혀져갈 무렵,



여느때처럼 방과 후 도서관에
가려는 날 선생님이 붙잡더니
같이 저녁을 먹자며 동네
고깃집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성민아!

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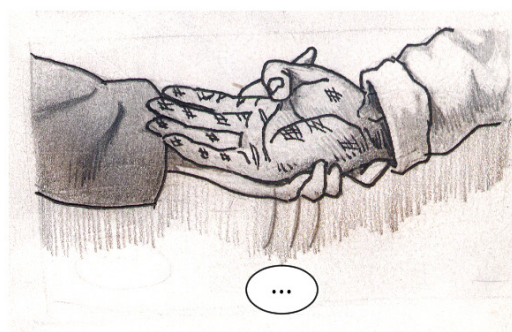


성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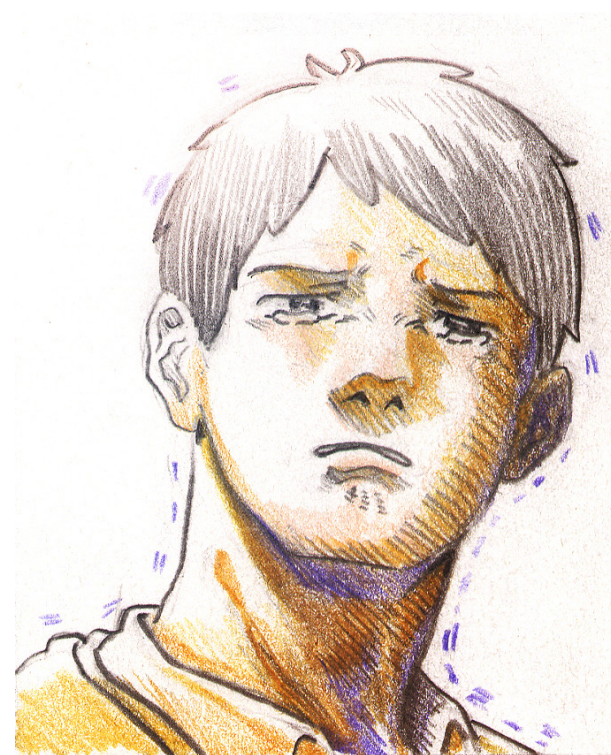
넵

네?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자리에
앉았는데



...





겉질이 심하게 벗겨져
연필도 제대로 잡기
어려운 손,

매일 거짓말을
해야 했던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서러움이 되어
한 번에 터졌지 않았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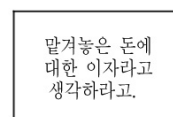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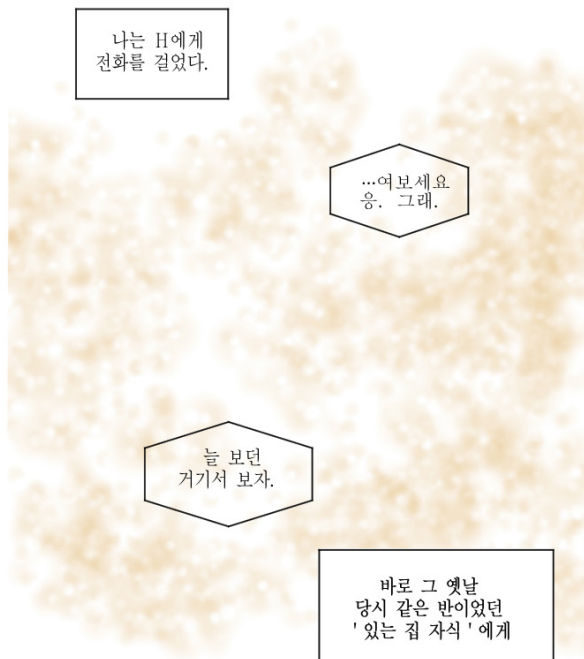
선생님은 정말 다음날
서울에서 가장 큰 서점에
나를 데리고 가주셨고,

그 날 이후로 마음을 다잡게 된
나는 성적이 점점 올라
교내에서 인정받는 장학생 중
한명으로 당당히 졸업할 수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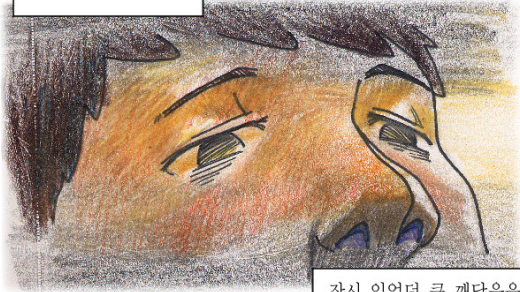




기분 좋게 취기가
올라 집에 들어선
나는 다시 내 방에 있는.

곰돌이 인형을
바라보았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었던 존재.



잠시 잊었던 큰 깨달음을
다시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를...

그리고 재차
다짐했다.



항상 바르고 올곧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저 깨끗한 곰돌이 인형처럼.